

#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3, 귀납적 방법론, 정확성, 정보 제공, 저자, Sensus Plenior, 맥락

© 2024 데이비드 바우어와 테드 힐데브란트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세션 3, 귀납적 방법론, 정확성, 정보 제공, 저자, 전체 감각, 맥락, 분석 및 종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다섯 번째 숫자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는 정확합니다.

내가 이 부분을 나누기 전에 언급했듯이, 이것은 실제로 부정확한 해석에 대해 정확한 것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이 있거나 실제로 가정하며, 더 나아가 좋은 해석과 나쁜 해석, 옳은 해석과 잘못된 해석 사이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 그렇다면 해석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판단에 따르면, 다시 한 번 귀하의 고려를 위해 이 내용을 폐기합니다. 우리의 판단에 따르면 해석에는 저자의 의도에 호소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저자가 원래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의도에 가까워질수록 해석이 더 좋아집니다.

우리의 해석과 저자가 원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사이의 일치는 정확한 해석에 관해 이야기하는 기초입니다. 이제 저자의 의도에 호소한다는 개념이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자의 의도가 텍스트의 의미와 무관하며, 실제로 구절의 의미는 그것이 원저자에게 무엇을 의미했는지보다는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사실은 독서 과정의 근본적인 현실은 저자의 감각, 즉 언급되고 있다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저자의 목소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우회하는 일종의 해석학, 해석에 대한 일종의 사고에 참여한다면, 텍스트를 텍스트 자체의 성격에 따라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 있지만, 적어도 그런 사람은 솔직하게 그것이 텍스트로서의 성경의 본질과 읽기 경험 모두에 모순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말했듯이, 독서 경험의 가장 근본적인 현실은 언급되는 감각, 즉 작가의 감각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듣는 저자의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저자에 대한 호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추구하고 해석에서 우리가 어떤 작가 또는 어떤 능력으로 호소하고 있는지 정확히 조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우리가 해석에서 저자의 의도에 호소할 때 실제로 이 말을 쓴 실제 저자에 반대하여 묵시 저자에게 호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현실성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사실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저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저자, 자신이 쓴 것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태나 마가, 바울에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육혈의 저자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저자는 묵시저자, 즉 텍스트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제시하고 텍스트에서 추론할 수 있으며 텍스트 자체 내에 암시된 저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저자와 묵시 저자, 즉 우리가 이 텍스트에서 만나는 저자를 구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입니까? 글쎄, 그것은 단순히 실제 저자가 동시에 항상 묵시적 저자보다 크거나 작다는 것을 인식하는 문제입니다.

살과 피의 저자는 어떤 구절의 묵시적인 저자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이 믿고 더 넓은 범위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묵시적인 저자보다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예수에 관한 온갖 종류의 지식과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교리는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그리스도론이나 그리스도의 초상, 그리스도에 관한 개념,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보다 더 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혈의 저자는 묵시적인 저자보다 더 크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한이 복음의 본문을 끝맺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말함으로써 복음의 본문을

끝맺습니다. 이 책을 쓴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21-25장의 복음서 끝 부분에 예수께서 하신 일 외에 다른 일도 많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서 많은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들을 알고 있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요한의 견해가 이 21장에 있는 요한의 글에 들어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광범위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의 책.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반대로, 묵시적 저자가 항상 살과 피를 나눈 저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책을 쓰고 그 책을 출판할 때 그 책은 어떤 의미에서 그 자체의 생명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과 피의 저자가 의식적으로 의사 소통을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작가는 항상, 특히 확장된 글쓰기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작가는 항상 의식적으로 말하려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합니다.

구절의 의미는 살과 피를 쓴 저자의 의식적 의도보다 더 큽니다. 이런 종류의 문제를 논의한 현대 작가 중 한 명은 ED Hirsch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특정 시가 토론되었다고 말하는 수업, 예를 들어 현대 시인의 시를 토론하고 이 시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학 수업을 상상해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 대화하고, 시에 참여하고, 수업에서 시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시인 자신을 초대하고 우리가 당신의 시를 연구하면서 그 의미 측면에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그 시인이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제가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의식적으로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는 그 시의 내포 작가는 의미 등의 측면에서 살과 피 작가보다 더 컸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게 말한 것은 물론 우리가 한 일은 살과 피의 저자와 묵시적인 저자를 구별한 것입니다. 사실은 실제로는 살과 피의 저자가 전혀 무능하지 않은 이상, 살과 피의 저자의 의도와 묵시적 저자 사이에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작가 중 누구도 무능하다고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저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저자가 말하려고 의도한 것과 실제로 말하는 것 사이에는 실제 연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식적인 의도를 넘어서거나 적어도 저자의 의식적인 의도를 뛰어넘는 구절에 일종의 풍부함, 의미의 견고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는 여러 면에서 우리의 목적에 있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중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그것은 대체로 신약이 구약을 사용하는 것과 신약이 구약의 구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원래의 내용이 성취되는 구약의 구절을 인용한다는 사실을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나 구약의 원저자는 알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것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은 *sensus plenior*, 실제로 완전한 의미, 충만하거나 풍부한 의미, 그것에 대해 말하는 방식, 구절의 완전하거나 풍부한 의미입니다.

이제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 이런 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장, 죄송하지만 마태복음 2장 15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고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성가족이 이집트로 피신한 것을 기억하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이는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내 아들을 불렀느니라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의 인용문입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호세아 11장 11절의 맥락에서 그 구절을 읽으면 그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사실이 매우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실제로 호세아가 기록하기 수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인도하신 출애굽을 언급했지만, 이제 마태는 이것이 예수 안에서 성취된다고 말합니다.

즉, 호세아 1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호세아는 실제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은 호세아가 기원전 8세기 북부 이스라엘 청중에게 전달하려고 의식적으로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말은, 이것은 단지 신약성서 작가들이 구약성서 구절들에 관해 가지고 있는 확신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석에 있어서 묵시적 저자와 실제 저자 사이의 이러한 구별의 또 다른 중요성은 해석이 구절의 의미가 원래의 살과 혈통 저자에 의해 의식적으로 의도되었다는 절대적 확신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턱이라면, 구절의 의미에 관해 많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증거에 대한 건전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것이 이 구절의 의미이고 저자가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의미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의도했든 마태가 의식적으로 의도했든 그것은 그들이 말한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특히 기독교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 우리는 정말로 인간 저자가 말한 것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성한 저자이신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에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본문 자체의 성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자체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 주장하는 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항상 1인칭으로 언급하지 않고 2인칭으로 언급합니다. 이 분명하고 다소 친숙한 관찰은 성경의 구조적 계시에 따른 계시가 결코 매개되지 않는다는 심오한 인식으로 우리를 이끈다.

즉, 하나님은 인간 저자들의 중재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마음, 이 말씀을 기록한 인간 저자의 마음을 통해 일함으로써 신의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만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인간의 말과 인간성을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이 텍스트를 통해 전달된 인간 저자와 그들의 의도를 충분히 고려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계시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하는 신약성경의 몇 안 되는 구절 중 하나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베드로후서 1장의 끝 부분, 베드로후서 1장의 끝 부분, 베드로후서 1장, 20장, 21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다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제 해당 문장의 문법 구조를 살펴보세요. Man, 주어와 술어는 사람이 말한 것이며, 그 다음 종속절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자, 그 종속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속절이라고 말하는 것이 종속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점은 계시가 사람이 말하는 것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인간 저자가 인간의 말로 전달하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확실히 가장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은 인간 저자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저자의 의도에 호소하여 부정확한 해석에 맞서 무엇이 정확한지 결정하는 기초로 삼으십시오.

이제, 귀납적 접근 방식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추가 확신이 있습니다. 즉, 우선 관련 지식을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종류의 지식은 문맥적 지식으로, 성경 책 내에서의 기능에 비추어 개별 구절이나 주제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우리는 중요한 해석학적 요점을 만들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려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려는 것은 제가 말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성경의 기본 문학적 단위는 성경책이다.

G. Campbell Morgan이 말했듯이, 책은 그다지 많지 않으며, 성경은 책이라기보다는 책들의 도서관입니다. 성경은 책이라기보다는 책들로 이루어진 도서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성, 이 책의 성격입니다.

와 전달해야 할 고유한 메시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책성, 성경의 책 성격은 실제로 정경 과정에 의해 암시됩니다. 교회, 음, 이스라엘, 우선 유대인, 그리고 신약의 기독교 교회가 성경 정경의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유대인들과 그 이후 어느 정도 후에 기독교 교회가 무엇이 정경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정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관해 결정을 내렸을 때, 두 경우 모두 신앙 공동체인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책에 기초하여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서를 정경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특정 복음서에 관해 결정을 내리는 문제였습니다.

포함되지 않은 특정 책, 복음서, 포함된 다른 복음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는 마가복음의 일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5장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해 봅시다.

표준이지만 마가복음의 나머지 부분은 비표준으로 간주합니다. 그것은 책 전체가 정경으로 간주되는지, 아니면 책 전체가 정경으로 간주되지 않는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정식 포함 또는 제외 결정은 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성경 자체의 성격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근본적인 책성(bookness)이 관련되어 있으며, 성경은 각 책을 해당 시대에 해당 저자가 쓴 것으로 제시하고 고유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말했듯이 이것은 교회법적 포함과 배제의 측면에서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성경은 책이라기보다는 책들로 이루어진 도서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한 책을 다른 책으로 읽거나 한 책의 메시지를 다른 책의 메시지로 축소하되 각 책이 고유한 메시지를 제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다른 성경 구절과 다른 성경 책들을 우리의 책이나 우리가 언제든지 공부하고 있는 책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또는 잘못된 방식으로 읽어주지 않고, 그 자체의 용어로, 그 자체의 용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전체 맥락의 사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본 문학적 단위가 성경의 책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실제로 문맥이 단순히 당신이 작업하고 있는 구절 바로 앞이나 바로 뒤에 있는 구절이나 구절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해석하지만, 그 책 내의 모든 것은 문학적 맥락으로 기능합니다.

성경 전체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절의 문학적 맥락입니다. 작가가 책을 만들 때 작가는 텍스트의 세계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텍스트의 세계, 텍스트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즉, 책은 실제로 문학적 세계의 구성을 포함하며, 이는 주어진 책 내의 모든 구절이 어떤 방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해당 책 내의 다른 모든 구절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절을 문맥에 맞게 해석하고 싶다고 말할 때,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바로 앞과 뒤에 나오는 구절의 관점에서 이것을 의미합니다.

미디어 맥락에 있어서는 괜찮지만 책 전체 내에서의 기능에 비추어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련 상황적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관련 구조적 지식을 암시합니다.

즉, 맥락적 지식은 맥락적 지식뿐만 아니라 구조적 지식도 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잠시 이 맥락적 지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물론 나는 문학적 맥락으로서의 책을 매우 강조한다.

정경적 맥락, 즉 역사적 맥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정경에 비추어 해석하고, 그 자체의 역사적 생산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 우리가 구조적인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이 시점에서 단순히 문학적 책의 맥락뿐만



아니라 정경적 맥락의 맥락과 관련하여 더 많은 것을 말해야겠습니다. 사실, 성경이 66권의 개별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 한,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일부 책은 측면에서 더 역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이 150편이나 있는 시편이나 시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편들 각각은 말하자면 그 자체의 책으로 기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시편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이 시편 전체인 시편의 통일성과 개별 시편이 시편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개별 시편이 그 자체의 문학적 단위, 거의 그 자체의 작은 책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수준에서는 시편 내의 다른 시편, 특히 각 시편 바로 앞과 뒤에 나오는 시편과의 관계에 비추어 읽어야 함을 암시하기 위해 시편 내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때, 각 책의 독특한 메시지의 중요성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 메시지를 무비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책을 그 책에 넣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성경이 단순히 서로 분리되어 있는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식 조립품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경에는 66권의 정경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며, 정경 집합 내의 다른 책들에 비추어 이 책들을 읽으라는 초대는 성경 자체의 형태 내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각 책의 독특한 메시지와 책의 맥락 내에서 구절의 독특한 메시지를 인식하고 포용하는 것이며, 무비판적으로 다른 책이나 다른 성경 구절을 우리 책이나 구절에 포함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한 후에, 책의 맥락에서 이 구절의 의미를 확인한 후에, 계속해서 이 구절과 책의 맥락 내에서 그 의미가 나머지 성경 정경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탐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 구절에서 말하는 내용의 의미를 완성하거나 채우고, 성취하고, 더 넓은 의미로 가져오는지, 심지어 성경의 다른 구절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 내용에 자격을 부여하거나 미묘한 차이를 줄 수 있는지 우리 통로에서. 따라서 그것은 둘 중 하나 또는 일종의 제안이 아닙니다. 이는 개별 책의 맥락에서 개별 구절의 독특한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시에 개별 책 내의 개별 구절의 의미를 연결하거나 전체 책의 메시지를 성경의 메시지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말했듯이 둘 다 실제로 문학적 맥락과 표준적 맥락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나 다시 책의 맥락에 비추어 구절을 해석하고, 개별 책의 독특한 의사소통, 독특한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책 안의 모든 구절이 책 안의 다른 모든 구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우리는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구조는 의미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구조는 구절이나 구절 내의 요소가 주변 맥락, 주변 문학적 맥락의 요소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탐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책은 복합적이다. 작가는 단어를 모아서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모아서 단락을 만들고, 단락을 모아서 세그먼트를 만들고, 세그먼트를 모아서 섹션을 만들고, 섹션을 모아서 구분을 만들고, 구분을 모아서 책 전체를 구성합니다.

ww 화이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물이 서로 시선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가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개별 요소가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의미는 개별 단어 자체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단어는 다른 단어와 관련해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문장은 단독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문장은 다른 문장과 관련해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단락은 단독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단락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단락과 관련해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책의 부분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해당 의미는 다른 세그먼트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파생됩니다. 그리고 관계의 모든 문제는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조는 사물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사물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탐구하는 것을 포함하며, 구조를 이해하거나 사물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사물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순수한 콘텐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형식, 관계, 구조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나는 가끔 집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집은 a가 아니다. 물론 집은 목재와 널빤지, 못과 벽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집은 단지 목재와 벽돌, 널빤지 등을 잔뜩 쌓아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집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도 지붕널과 목재와 벽돌 더미를 집으로 착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에는 내용물, 목재, 벽돌, 널빤지, 못 등이 포함되며, 그 내용물이 특정 방식으로 배열되고 구조화되는 것과 관련됩니다. 특정 방식으로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어야만 집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성경책도 없습니다.

책은 특정한 방식으로 배열되고,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된 콘텐츠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모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내용, 내용, 형식, 구조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내용에 접근할 수 없고 구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조를 이해하고 구조해석을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지식, 관련 맥락 지식, 관련 구조 지식 및 관련 역사적 지식과 관련된 관련 지식의 사업입니다.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배경 해석의 사용은 제가 앞서 말한 내용을 역사적 맥락의 맥락에서 실제로 이해하고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성경의 문학적 연구와 역사적 연구를 구별하거나 심지어는 간극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잘못된 이분법이다. 문학이나 문학이라고 말하자마자 역사를 암시하거나 가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 모든 문학 작품에는 역사적 기원과 역사적 맥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배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해석에 이 배경을 활용하지 않으면 문맥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 연구의 과정 측면에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나중에 조금 이야기할 내용의 실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학적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신학적 성찰과 침투가 포함됩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 전에 관찰한 바에 따른 것이며, 이 문서들은 무엇보다도 신학적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다른 것들이 포함됩니다. 사실 당신은 참고할 만한 것이 있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자연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성경 속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책은 주로 하나님을 제시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진지한 신학적 성찰과 통찰이 수반됩니다.

또한 각각에 대한 찬반 주장과 함께 다양한 해석 또는 적용 가능성을 인식하는 지식입니다. 구절을 인식하는 것, 구절에 대해 가능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가능한 다른 해석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해석에 대한 논거를 제공할 수 있고, 구절이나 책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있는 다른 가능성에 반대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귀납적이고 체계적이며 진지하고 의도적이며 전체적이고 순차적이며 정확하고 정보에 입각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분석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구성요소를 세분화하고 개별 구성요소를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제 이는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개별 구절이나 개별 책을 구성 부분과 구성 부분으로 나누고 해당 부분의 의미를 다른 부분과 관련하여 기록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석의 문제이지만 우리는 분석이나 분석에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합성이나 합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개별 부분 간의 연관성과 연결을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개별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부분의 의미를 종합합니다. 예를 들어 문장의 다양한 단어나 세그먼트의 다양한 단락을 종합하여 이들 모두의 의미를 종합합니다. 전체.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이 구절이나 이 진리가 성경 전체나 성경 전체의 신학과 어떻게 관련되고 기여하는지 항상 묻는 것이 무엇보다도 의미하는 바가 포함됩니다. 즉, 우리는 개별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별 단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별 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나머지 부분에 있는 내용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학, 즉 성경 신학 전체를 생각해 내는 관점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기서 설교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한 구절이나 어쩌면 두 구절을 읽는 설교에서 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관행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설교할 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본문을 모두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본문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구절이나 선택한 본문에 대해 설교하고 실제로 내 설교에서 그 구절의 메시지, 그 구절의 구체적인 의미 또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에 있어서 그것은 어떤 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제가 설교하고 있는 구절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나 주제가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어떤 설교에서든지 성경이 그에 관해 말하는 내용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직접적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주제, 이 주제에 대한 다른 성경적 해석이 있다는 것을 회중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특정 구절에 대해 설교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간접적인 방법은 실제로 정기적인 목회적 설교나 목회적 가르침을 통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설교할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중은 실제로 다양한 성경적 각도에서 다양한 진리를 경험하거나 접하게 됩니다. 매달, 해마다 성경을 통해 설교하는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덧붙여서, 이것은 아마도 다른 경향에 맞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경의 다양한 부분의 구절을 설교하도록 강요받는 성구집과 같은 것을 활용하는 특히 젊은 설교자들의 한 가지 장점일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아닌 사랑받는 책이나 성경의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 설교함으로써 당신의 백성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대한 종합적인 감각을 얻는 것을 실제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쉬고 싶습니다. 약 한 시간 동안 이동한 후 다시 돌아와서 이를 마무리한 다음 특정 프로세스, 즉 여러분이 고려할 수 있도록 제시할 가상 프로세스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세션 3, 귀납적 방법론, 정확성, 정보 제공, 저자, 전체 감각, 맥락, 분석 및 종합입니다.